서울시교육청, 아동권리 보장 앞장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18.7억 예산 투입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
"교육현장 차별 문제 해소 기대"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 제도임에도 그간 외국 국적 유아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 권리 보장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져야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 추진에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비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외국인등록이 된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내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CJ제일제당 문제해결 프로젝트 최종성과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CJ제일제당 '산학협력 문제해결' 성과 공유

AI 기반 식품공정 최적화등 과제 수행

인하대학교는 CJ제일제당과 채용연계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영 CJ제일제당 부사장, 김대우 CJ제일제당 엔지니어링 담당, 문병선 인천냉동공장 식품공장장, 권영기 인천1공장장, 임항순 인천2공장장 등 CJ제일제당 관계자와 인하대학교 박현순 대외협력처장, 정태욱 학생처장, 이천 전기공학과 교수, 신백균 전기공학과 교수, 조영근 전기공학과 교수, 김대유 전기공학과 학과장이 참석해 발표평가를 실시했다.

앞서 인하대 전기공학과는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과 채용연계형 산학협력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학협력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CJ제일제당의 코칭멘토와 소규모로 팀을 이뤄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품공정 최적화와 식품플랜트 전력시스템 최적화 등을 주제로 한 과제를 수행했다.

이번 우수성과 발표회에서는 CJ제일제당 경영진과 인하대 교수진이 프로젝트 발표평가, 코칭멘토 평가, 학생 상호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와 우수학부생을 선정했다. 우수학부생에게는 CJ 인턴십 및 신입사원 채용 기회가 제공된다.

/김현정 기자

고려대-삼성전자, 차세대통신학과 설립 맞손

6G 분야 등 미래인재 양성 협력
등록금 전액 산학장학금 지원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사장(왼쪽)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오른쪽)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고려대학교와 삼성전자가 6세대(6G)를 포함한 차세대 미래 통신 기술을 다루는 차세대통신학과를 설립한다. 고려대는 삼성전자와 함께 17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에서 차세대통신학과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학과를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설치한다. 차세대통신학과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2023학년도부터 매년 3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현재 국방부와 사이버국방학과(2012학년도 첫 입학), SK하이닉스 반도체공학과(2021학년도 첫 입학)를 계약학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삼성전자와의 차세대통신학과 세 번째 학부 내 계약학과다.

학생들은 4년간 기본교양, 기초전공, 심화전공, 융합전공의 순서로 학업을 이어가며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통신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비보조금이 산학장학금으로 지원되며 대학원 연계 진학을 할 경우에도 학비 전액과 학비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 및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연구소 등의 견학 기회도 제공되며 해외 저명학회의 견학의 기회도 주어진다. 강의 외에도 1:1 원어민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양 기관은 차세대 미래 통신 기술(6G, 인공지능통신, 위성통신) 등 핵심 주제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밀접한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통신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통신 분야 선순환 생태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려대와 삼성전자는 대학원 과정으로 모바일솔루션학과(2009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를 운영하다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IT융합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5학년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lhj@

덕성여대, '덕성이룸 예비대학' 운영

신입생 대상 대학안내·학업지원

덕성여자대학교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수시합격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덕성이룸(Iirum) 예비대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덕성이룸 예비대학'은 계열별로 통합 선발된 신입생들에게 대학을 안내하고, 이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코스다. 덕성나눔, 덕성탐구, 덕성이룸으로 구성됐다.

'덕성나눔'은 덕성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덕성탐구'는 덕성을 빛낸 동문들, 대학홍보매체,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덕성이룸'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대학강의 맛보기로 ▲가치를 디자인하다(텍스타일디자인전공 이은옥교수) ▲미래사회, AI, 그리고 나(차미리사교양대학 박주연교수) ▲건강이란?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약학과 정주희교수) ▲여성주의 관점으로 여자대학 이해하기(차미리사교양대학 김주희교수) ▲익숙한 것 낯설게 보기(문화인류학전공 이수정교수)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전공 서민혜교수) 등이 준비됐다.

이외에 학업 지원의 일환으로 '발표력 200% 상승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 특강', 입시와 코로나로 지쳤을 학생들을 위한 마음건강 테스트인 '찾아가는 심리측정행사'(심심해.心心解)도 준비됐다.

/김현정 기자

정부 "낙후 학교 디지털 전환 5200억 투입"

안도걸 기획부 차관 미래교육 간담회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800여개 낙후된 학교 건물을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 5200억원을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교육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2025년까지 노후학교 2835곳에 디지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공간 전환을 위해 총사업비 18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한국뉴딜의 대표 과제로 꼽힌다.

안 차관은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최첨단·친환경 학교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기존 사업 대상 761곳과 함께 임대형 민자사업(BTL) 132곳 등 신규 518곳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국고 지원 규모를 작년 943억원에서 519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듈러 건축' 방식의 임시 교사 설치비용 1156억원을 포함한다.

그린스마트 스쿨 1단계 사업 대상 학교 761곳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2단계 이후 2074곳에 대해서도 예타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대상의 25%는 BTL로 진행해 건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원광디지털대

21일부터 신·편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원광디지털대는 3개 학부, 17개 학과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유다움' AI × ART 공모전 대상

앨리스 모티브 미디어아트 작품 선봬

세종대학교는 교내 창업팀 '유다움'이 '인공지능과 예술(AI×ART)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과 예술(AI×ART) 공모전'은 국립중앙과학관이 국내 AI 창작 분야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주관한 행사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AI를 통한 낯선 아름다움의 발견'이었다. 낯선 아름다움은 인간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간의 창조적 협력 관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의미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그림, 음원, 미디어아트 등의 창작 작품들을 공모하고, 일반부와 학생부에서 각 8점의 본상 수상작(부문별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입선작 5점)을 뽑았다.

이번 공모에서 세종대 스마트기기공학전공 이유빈, 무인이동체공학전공 이은지, 컴퓨터공학과 변준영,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최지현 학생으로 구성된 '유다움'은 일반부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유다움' 팀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AI ris : Alice'라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현대인을 대표하는 관람자인 '앨리스'와 '채셔캣'과의 대화를 통해 앨리스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김현정 기자